

↑ 코스피 2867.38 (+9.62)	↑ 코스닥 860.42 (+1.15)
↓ 금리 (연이자율) 3.100 (-0.019)	↓ 환율 (원/달러) 1381.60 (-1.70)

고삐 풀린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에 '영끌·빚투' 부활

5대 은행 가계대출, 나흘새 2조 ↑
주담대 8387억 신용대출 1조 증가
DSR 규제 미루자 투자열풍 점화
전문가, 일관된 부채축소정책 필요

부동산 '영끌'과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부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책 엇박자로 만들어진 상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미뤄졌던 정책을 조기에 실행시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총 710조 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08조 5723억원에서 나흘 만에 2조 1835억원이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에만 5조 3415억원 늘어나면서 지난 2021년 7월(6조 2009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뒀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52조 1526억원에서 552조 9913억원으로 8387억원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대출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주간 기준)을 보이면서 주택매수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102조 7781억원) 대비 나흘 만에 1조 879억원 증가하면서 103조 866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D데이

삼성전자는 오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 '카루젤 뒤 루브르'는 유서깊은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시회, 패션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운영된다. 루브르의 상징과 같은 유리 피라미드가 역방향(지상에서 지하로)으로 솟아져 있는 '카루젤 뒤 루브르'의 중앙 공간 주변에는 갤럭시 언팩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방문객들을 맞으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회복, 대어급 IPO(기업공개) 상장, 비트코인 저가 매수 등으로 '빚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급등세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서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점을 두 달 뒤로 미뤘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밝힌 가계대출 목표량에 여유가 있어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오는 12일 시행), 케이뱅크는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또한 지난 3일 시중은행 담당 부회장들을 긴급소집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주문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오는 10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라가락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조만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물가 안정세 예상 내수도 점차 개선”

이창용 한은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의 둔화 흐름은 주춤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로 1년 전과 비교해 2.4% 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과 3월 3.1%에서 4월 2.9%, 5월 2.7%로 둔화하는 추세다. 이 총재는 이 같은 흐름이 내수 개선으로 이어져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근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하반기 내수 개선세로 이어지면서 올해 2.5%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2%대 둔화 ‘긍정적’
25만원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 해야

◆ 민생회복 지원금, 취약계층 선별지원 필요

이날 이 총재는 내수개선을 위한 25만원의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호조여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계층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하락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건설경기 악화에 시멘트·레미콘업계 ‘보릿고개’

원자재 수요 급감 속 곳곳 북병
시멘트값·레미콘운송비 ‘쟁점’
주택경기 회복까지 시간 걸릴 듯

시멘트, 레미콘이 보릿고개를 한창 넘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원자재적인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크게 줄면서다.

하반기에도 주택건설경기가 살아날지 미지수여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등 시계제로 상대다.

이런 가운데 운송사업자(기사)들의

과업 고비를 넘긴 레미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송비(운반비) 인상 여부를 놓고 레미콘회사와 기사들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시멘트값을 놓고선 시멘트회사와 건설사가 맞서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수요가 크게 위축돼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곳곳에서 북병까지 만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시멘트·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와 레미콘은 수요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R

eady Mixed Concrete’의 약자인 레미콘(REMICON)은 시멘트와 모래·자갈 등 골재, 혼화제, 물을 섞어 만든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량은 올해 1분기(속보) 1049만톤(t)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1173만t보다 10.6% 감소했다. 출하량 역시 같은 기간 1211만t에서 1053만t으로 13%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6월 들어 출하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2분기는 더욱 위축됐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분기부터는 시멘트 수요가 늘면서 출하

도 증가한다. 4분기도 대표적인 성수기다. 하지만 2분기부터 눈에 띄게 감소폭이 커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하량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시멘트 출하량(내수 기준)은 2475만t(2019년)→2323만t(2020년)→2408만t(2021년)→2424만t(2022년)→2604만t(2023년)을 각각 기록했다.

BS11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야,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부른다
▲ 이재명, 내일 대표 출마 선언...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 (사진 뉴스스)

▲ 정부 “김일성 추모 기준 수위... 김정은 부상화 속도조절”
▲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원외자유우파 모임 집결... “우파 진지 구축 필요”



▲ 한총리,尹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유럽시장 진출 확대 기회”
▲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거부권 수순 (사진 뉴스스)